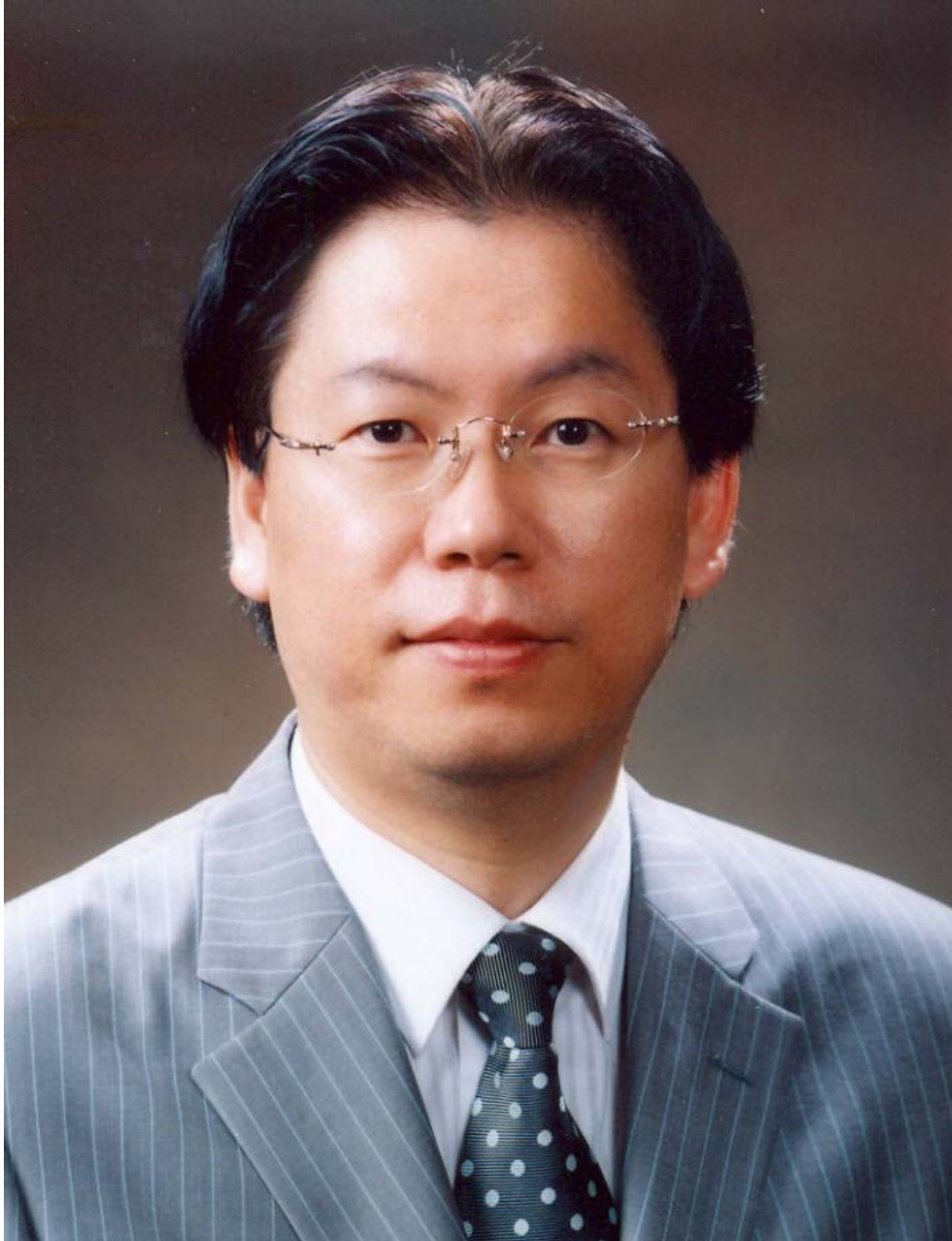


한세광 포스텍 교수, 신풍제약과 유착방지제 메디커튼 개발

[2013년 05월 06일]



한세광 포스텍 교수(신소재공학과) 연구팀이 신풍제약과 공동연구를 통해 생체고분자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과 하이드록시에틸스타치(Hydroxyethyl starch)를 이용, 신개념 유착(adhesion) 방지제 메디커튼을 개발해 의료시장에 출시했다.

이번에 개발된 메디커튼은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6개 병원에서 실시된 자궁내막근종 등 자궁경을 통한 수술환자 213명에 대한 임상시험과 서울아산병원 등 3개의 병원에서 실시된 복강경 수술환자 91명에 대한

임상결과 안전성과 탁월한 유착방지 효능을 확인했다.

이를 기반으로 메디커튼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KFDA) 승인을 받았으며, 유럽연합의 CE(Comunauté Europeenne) 인증도 받아 유럽 의료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세광 교수는 이와 함께 신풍제약과 공동으로 히알루론산 유도체를 이용한 성형수술용 필러, 관절윤활제, 간질환 맞춤형 단백질 약물전달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연구도 수행중이다.

현재 세계적 수준의 나노의약 개발을 위해 하버드 의과대학과의 공동연구 및 해외 전임상시험도 진행 중이다.

한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유착방지제 메디커튼은 포스텍-신풍제약 산학연구의 첫 사업화 사례로, 현재 진행 중인 공동연구를 통해 다양한 나노의약 제품을 상업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히알루론산 유도체 및 다양한 생체재료를 이용한 나노의약개발과 관련, 최근 3년간 생체재료 분야에서 총 33편의 논문을 SCI저널에 게재했다.

포함=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